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93
OCT 22 2021

발간년월 2021년 10월 22일(통권 제193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소브콤플로트·국제해사기구, 친환경 선박 기술 논의
- 러시아 모스크바, 물류 창고 거래와 건설량 늘어났다.
- 무르만스크 선도개발지역, 전력공급시스템 구축한다.
- 러 SevMorPark, 벌크화물 운송용 컨테이너 백 생산

주요 통계

- 2021년 9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8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 2021년 8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주요 동향



소브콤플로트·국제해사기구, 친환경 선박기술 논의

■ 소브콤플로트(Sovcomflot) 전무와 IMO 사무총장, 런던에서 회의 개최^{a)}

- 영국 소브콤플로트 칼럼 루드게이트(Callum Ludgate) 전무이사는 가스엔진 연료를 사용하는 러시아 연방 그린 시리즈 선박의 3년간의 운영 경험을 강조하면서 2050년까지 해상운송을 탈탄소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려는 국제해사기구(IMO)의 목표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위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현재 러시아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설명하였음
- 소브콤플로트는 가스엔진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세계 최초의 대형 아프라막스(Aframax)급 유조선 가가리나 포로스펙스(Gagarina Prospect)호를 이번 회의를 통해 IMO에 설명하는 한편, 이 선박이 해상 운송의 탈탄소화 분야에서 러시아의 노력이 인정되었다는 배경은 물론 해양산업에서의 최신 엔지니어링 기술 구현이 성공된 사례라는 점을 IMO 본부에 보고할 예정^{a)}
- 현재 건조 중인 소브콤플로트의 거의 모든 선박은 LNG 추진이 가능한 선박들인데, 소브콤플로트사의 조선 프로젝트에는 5척의 LNG 추진 석유수송용 유조선이 포함되어 있고, 6척의 선박이 이미 운영되고 있음
- 소브콤플로트는 친환경 선박 운항 경험을 통해, LNG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6%, 황산화물 배출량을 100% 줄일 수 있으며,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연간 94%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짐
- 이 같은 ‘그린 선박’을 건조하고, 운항에 투입한 이후 3년 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6만 4,000톤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나무 150만 그루를 식수한 효과와 같음

■ 소브콤플로트, LNG추진 유조선 건조를 통한 글로벌 인프라 개발 선도

- IMO는 소브콤플로트사가 IMO와 함께 환경에 대한 인간의 활동을 통해 야기되는 인위적 영향의 체계적인 감소, 기후 의제, 친환경 기술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소브콤플로트와 함께 해양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대체 연료 개발 및 기술 활용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소브콤플로트는 2015년에 대형 유조선 주연료로 LNG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2018년에 세계 최초로 LNG 연료를 사용하는 아프라막스급 유조선을 건조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음
- 현재 소브콤플로트는 LNG 추진 유조선 5척을 추가로 건조하고 있는데, 2021년 3월 셸(Shell)사와 협력하여 북미(미국 카나베럴항), 지중해(지브롤터 항)에 LNG 병커링을 위한 설비를 마련하는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양무역지역을 포함하여 LNG 병커선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임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백가희 실습생,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러시아 모스크바, 물류창고 거래와 건설량 늘어났다.

■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으로 모스크바 지역 물류창고 거래와 건설 증가^{a)}

- 최근 JLL사가 발간한 ‘글로벌 물류 부동산의 미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국내 화물 운송량은 지난 1년 동안 3배 넘게 증가하였고, 2021년 상반기 유럽 물류창고 거래량은 1,480만㎡로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 러시아의 경우 전년 대비 45% 증가한 140만㎡로 독일,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에 이어 6위를 차지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향후 3년 동안 창고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음
- 모스크바와 모스크바 주의 물류 창고 거래량은 130만㎡, 창고 건설량은 150만㎡로 유럽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러시아에서 건설 중인 물류창고는 210만㎡이지만 그중 ⅔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러시아 전역이 균등한 성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음

■ 설문조사 결과 71%가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물류 거래량이 증가 전망’

- 전문가들은 특별수송, 소포배달, 3PL, 의료,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증가와 글로벌 추세와는 다르게 전통적인 소매 부분에서 매우 활발히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함
-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전 세계적 에너지 효율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유럽 응답자의 40%가 지속 가능한 개발 측면의 창고 사용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 중 네덜란드(69%), 프랑스(55%)의 응답자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함
- JLL의 창고 및 산업 부동산 연구 책임자 존 실리만(John Slimane)은 지속 가능한 개발은 대기업, 투자자, 개발자들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부분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매력도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이 회사는 창고 효율성, 수용능력, 기능 등에 있어 건물의 크기는 직접적인 핵심 요소이며, 앞으로 10,000~50,000㎡ 규모의 물류창고 수요가 가장 많다고 덧붙였다
- 하지만 유럽의 경우, 비싼 지대로 인해 대형창고는 수익성이 떨어져, 5,000㎡ 미만의 수요가 5~20% 증가한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39%, 독일의 경우 응답자의 50%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90%는 미래 공급망 개선을 위해 자동화 및 로봇화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 JLL의 창고 및 산업 건물부 부서장 에브게니 부마긴(Evgeny Bumagin)은 올해 말까지 모스크바 지역의 창고 수요량은 200만~220만㎡를 초과할 것이며, 러시아 전체의 창고 수요량은 350만~400만㎡를 넘을 것이라 강조하였음

강하람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wish125@hufs.ac.kr)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

참고자료

- a) https://logirus.ru/news/infrastructure/e-commerce_-podgonyaet-_logistiku_i_skladskie_stroyki_po_vsemu_miru.html(2021.10.16. 검색)

무르만스크 선도개발지역, 전력 공급시스템 구축한다.

■ 콜라만 서쪽 해안지역에 입주기업이 사용할 전력 시스템 설치

- 러시아는 무르만스크(Murmansk) 콜라 만(Kola Bay) 서쪽 해안의 선도개발지역과 러시아 연방 북극 지역 등의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공급시스템 건설한다는 계획을 확정하였음
- 극동북극개발공사와 로세티 노스웨스트(Rosseti North-West)는 북극 지역 전력공급 관련 협정을 체결하였고, 로만 치츠크노프(Roman Chichkanov) 극동북극개발공사 부사장에 따르면, 전력 인프라 구축 단계를 설정하는 로드맵을 확정시킴
-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투자프로젝트에는 이 지역에서 사용될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용 용량을 가진 전력공급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추정치에 따르면 인프라 건설비용은 약 50억 루블임
- 이번 프로젝트는 러시아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PPP) 메커니즘인 '북극 양허'를 통해 이뤄지는데, '북극 양허' 메커니즘은 북극 지역에서 특정 프로젝트 실행 시 기후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필요한 경제적·행정적 지원을 가능케 하여 러시아 정부, 기업, 지역 사회가 함께 북극권 지역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임
- 이러한 민관 합작 메커니즘을 통해 10~20년 이내에 인프라 건설 비용의 최대 100%까지 투자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안드레이 치비스(Andrey Chibis) 무르만스크 주지사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극 선도개발지역과 러시아 연방 북극지역 입주기업들의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총 전력은 214MW임

■ 무르만스크 선도개발지역에 입주한 기업에게 입주 특혜를 제공

- 현재까지 무르만스크에서는 총 투자규모가 968억 루블인 9개의 기업이 선도개발지역에 입주기업 자격을 획득했고, 러시아 연방의 북극지역 입주기업은 총 945억 루블의 80개 프로젝트를 시행할 자격을 얻음
- 선도개발지역 입주기업에는 다양한 특혜가 제공되는데, △10년 간 신설된 일자리의 고용보험료 -7.6% 세제 혜택, △입주 후 소득세의 경우 처음 5년은 -20%, 다음 5년 동안은 -12% 세제 혜택, △입주 후 처음 5년 간 재산세 전액 면제 및 3년 간 토지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음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백가희 실습생,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러 SevMorPark, 벌크화물 운송용 컨테이너 백 생산

■ 대량 화물용 PP 벌크백 제조 단지를 극동북극개발공사와 협력으로 건설^{a)}

- 러시아의 SevMorPark사 니키타 주크(Nikita Zhuk) 이사는 북극항로 서쪽 항만의 벌크화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화물 컨테이너에 공급 수요가 동시에 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벌크 백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음
- 그는, 소프트 컨테이너 즉, PP 벌크 백에 벌크화물을 실어 보냄으로써 화주들은 운송 중 화물 무게 초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20%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벌크백 생산지가 화물 선적 장소와 원료 생산지 근처에 있는 경우 벌크화물 선적에 용이할 것이라고 예측함

■ 벌크 백 생산지는 카렐리야 공화국의 벨로모르스크 항구 근처에 위치

- 이와 관련하여 SevMorPark는 총 면적이 3헥타르인 부지에 PP 벌크백 채봉 작업장, 교대 근무자 전용 기숙사, 창고 등을 카렐리야 공화국의 벨로모르스크 항구 인근에 건설할 예정임
- 이 곳에서는 60pcs/h 용량의 벌크화물 포장라인 및 보조 장비를 활용하여 특수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축자재의 적재, 하역, 추가 운송 작업을 수행할 예정인데, 이 지역 생산단지는 연간 최소 15만 개의 PP 벌크 백을 생산하도록 설계되었음
-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투자 규모는 8천만 루블에 달하고, 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임

■ 북극 지역에 진출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 지속적으로 증가

- 최근 러시아 극동북극개발공사에 따르면, 2021년 9월 현재 러시아는 북극 지역 입주기업들과 230건의 입주 및 투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들 기업은 약 2,790억 루블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9,600명 이상을 고용할 예정임
- 한편, 러시아 연방의 북극 지역 입주기업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러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극 러시아 포털에서 관련 자료를 작성해서 신청해야 함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백가희 실습생,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19817/> (2021.10.15. 검색)



주요 통계



표. 2021년 9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0/2021 증감율
극동지역	12.38 (+2.7%)	6.19 (-2.7%)	18.57	+0.8%
북극해	2.89 (+2.0%)	5.02(-2.9%)	7.91	-1.4%
발트해	10.2 (+7.9%)	10.38 (-1.4%)	20.58	+2.8%
아조프-흑해	10.00 (+6.6%)	11.14(+0.3%)	21.14	+3.0%
카스피해	0.2 (-30.8%)	0.34 (+0.4%)	0.54	-12.9%
합계	35.67(+4.8%)	33.07(-1.3%)	68.74	+1.7%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카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18402/> (2021.10.15.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19764/> (2021.10.15. 검색)

표. 2021년 8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24	식료품 및 원자재	347,673.4	46,802.8	885.6	1,215.6	348,559.0	48,018.3
25-27	광물 제품	665,439.4	46,277.0	22,875.9	43,409.9	688,315.3	89,686.9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497,127.2	45,861.1	382.8	0.92	497,510.0	45,861.1
28-40	생고무 화학 제품	4,519.8	66,195.2	1,130.3	377.0	5,650.1	66,572.3
41-43	가죽원료모 피 제품	14.2	1,868.8	14.4	76.2	28.6	1,945.0
44-4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4,796.5	6,586.7	232.5	145.9	95,029.0	6,732.6
50-67	섬유·섬유제 품 및 신발	334.6	63,643.0	61.3	4,116.4	395.9	67,759.4
72-83	금속 및 금속 제품	18,321.4	59,017.6	920.3	3,077.4	19,241.7	62,094.9
84-90	기계류	10,851.8	589,084.6	1,591.0	2,267.2	12,442.8	591,351.8
68-71, 91-97	기타	308,070.6	55,283.7	40,659.5	312.5	348,730.1	55,596.2
	합계	1,450,021.6	934,759.4	68,370.8	54,998.0	1,518,392.4	989,757.4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9.15. 검색)

표. 2021년 8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0302	냉장수산물	266	320.9	-	-	-	-	-	-	266.0	320.9	-	-
0303	냉동수산물	105,112	153,751.5	0	0.0	64	81.9	-	-	105,175.8	153,833.4	0	0.0
03031	연어	15,941	52,727.6	-	-	20	35.5	-	-	15,960.9	52,763.2	-	-
030331	광어	374	1,986.0	-	-	-	-	-	-	373.5	1,986.0	-	-
030332	가자미	924	851.0	-	-	-	-	-	-	923.8	851.0	-	-
030339	기타 넙치류	1,523	1,296.9	-	-	-	-	-	-	1,523.0	1,296.9	-	-
030351	청어	29,056	15,826.8	-	-	2	1.8	-	-	29,057.7	15,828.6	-	-
030363	대구	3,202	9,177.8	-	-	-	-	-	-	3,201.7	9,177.8	-	-
0303670000	명태	34,248	33,968.2	-	-	39	40.3	-	-	34,287.2	34,008.5	-	-
0303893	농어	2	5.9	-	-	-	-	-	-	1.6	5.9	-	-
030391	알류	1,131	119,388.0	-	-	-	-	-	-	1,131.2	27,226.5	-	-
030399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260	557.3	-	-	-	-	-	-	260.3	557.3	-	-
0304	생선 필레	7,324	24,097.1	0	0.0	30	65.3	-	-	7,354.3	24,162.4	0	0.0

0305	훈제 생선, 생선 가루	11	11.3	0	0.0	0	0.0	-	-	11.2	11.3	0	0.0
0306	갑각류	4,552	134,541.8	0	0.0	-	0.0	-	-	4,552.4	134,541.8	0	0.0
030614, 030633, 030693	게	4,161	129,073.7	-	-	-	0.0	-	-	4,161.3	129,073.7	-	-
0307	조개류	2,152	8,334.7	-	-	0	1.6	-	-	2,152.3	8,336.3	-	-
03072	가리비	757	1,317.6	-	-	-	-	-	-	756.6	1,317.6	-	-
03074, 03075	오징어 및 문어	883	2,453.8	0	0.0	0	1.6	-	-	883.6	2,455.3	0	0.0
0308	수생 무척추 동물*	0	0.0	-	-	0	0.0	-	-	0.0	0.0	-	-
03081	해삼	0	0.0	-	-	0	0.0	-	-	0.0	0.0	-	-
03082	성게	0	0.0	-	-	-	-	-	-	0.0	0.0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10.15. 검색)